

2. 뉴스클리핑

1. 국내외 반도체산업 주요 뉴스

▶ [K-반도체 전략] 정부, 반도체 R&D·설비투자 파격적인 세액공제

원문보기

정부가 13일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은 파격적인 세액 공제 혜택과 지원 정책을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반도체 회사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진행할 때 내야할 세금을 대폭 축소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골자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국내 반도체 대기업은 물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선 중견기업들에도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 615조원...메모리 사이클이 견인"

원문보기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600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경기 회복과 반도체 부족 현상이 주요한 배경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16일 'SMC코리아 2021' 회의에서 연사로 나선 법 존슨 가트너 애널리스트는 올해 반도체 시장에서 약 615조원(5450억달러)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반도체 웨이퍼 1Q 출하 사상 최대...전년비 14% 증가

원문보기

반도체 원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올해 1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등 주요 제품군에서의 수요 확대 덕분에 풀이된다. 4일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출하 면적은 33억3700만 제곱인치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29억2000만 제곱인치와 비교해 14% 증가한 것이다.

▶ 제조업에 번지는 반도체 대란... 글로벌 전략 동맹 바람

원문보기

반도체 칩 쇼티지(공급부족) 사태가 자동차를 이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과 더불어 반도체 제조사와 자동차·IT 등 수요업체들의 협력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국보호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 D램 '물리적 한계' 넘어선 삼성...반도체 기술 리더십 확보

원문보기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CXL) 기반의 D램 메모리 기술을 개발한 것은 기존 인터페이스 기반 D램의 물리적 한계를 깬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메모리 기술을 삼성전자가 개발하면서 반도체 기술 리더십을 확보한 것이다.

▶ 한국 반도체 산증인 황창규의 산업 최전선 누빈 기록들

원문보기

"닥터 황, 황의 법칙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황창규 전 KT 회장은 스티브 잡스에게 이 같은 질문을 자주 받았다. '황의 법칙'은 반도체 집적회로 성능이 1년에 두 배씩 증가한다는 반도체 성장론이다. 황 전 회장이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이던 2002년 2월 국제반도체회로학술회의 총회에서 발표했다. 실제 삼성반도체는 1999~2007년 이 법칙에 따라 용량이 향상됐다.